

효천역세권 155만㎡ 본격 개발

1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따라 '탄력' 택지·문화공원 조성...내년 7월 착공

광주시 남구 효천역 일대 150만㎡가 택지지구 등으로 본격 개발된다. 광주시는 22일 "최근 효천 1지구 내 개발제한 구역(69만여㎡)해제 요청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구역은 남구 행암동·송하동·임암동 및 서구 매월동 일원 155만㎡로, 사업시행자인 남구청과 대한주택공사가 개발계획수립과 환경·교통영

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7월 착공, 2010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남구청 등은 3천985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두 7천100여세대를 건립·공급할 예정이다.

효천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효천역·광주대·중앙유동단지·정부통합전산센터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광주 남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세부 계획수립 과정에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역 중 수풀이 양호한 지역은 인접한 화방산과 녹지축을 연결해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

는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주변 광주대와 송암공단 등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진월택지에서 효천지구를 경유해 중앙유동단지까지 가는 길이 5.6km 너비 30m 이상 간선도로도 신설한다.

시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건축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해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남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시내버스 불친절' 박광태 시장 화났다

"시민 받드는 서비스정신 가져야" 준공영제 정착 특단 대책 지시

박광태 광주시장이 시내버스의 불친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2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광주에서 수년 간 준비 끝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행한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준공영제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단호한 결단이 나와야 한다"고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했다.

박 시장은 특히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기사는 월급이 보장되는 준공무원인 만큼 버스관계자들은 시민을 하를 처럼 받드는 서비스정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관계 부서는 서비스 운영실태를 파악해 제도적인 장

치를 마련하고 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간부회의를 차분히 진행하던 박 시장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관계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버스종사자들의 근무 자세를 질책했다.

버스준공영제가 실시(지난해 12월21일) 직후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가 2개월이 지나면서 급속히 정착단계에 접어들자, 박 시장은 회의 석상에서 준공영제가 성공단계에 들어섰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불친절 여론이 높아지자 이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

박 시장은 "시민들의 혈세로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준공영제가 시민들에게 '아니 한만 못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중 판매 트랜스지방 허용량 3.4배 초과

광주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렌지용 팝콘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성인의 트랜스지방 하루섭취 허용량(2.2g)을 3.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트랜스 지방을 검사한 결과 전자렌지용 팝콘에서 7.5g, 빵류 중 패스츰에서 1.7g, 마늘빵에서 0.4g, 통닭에서 0.2g, 극강용 팝콘에서 0.02g이 검출됐다.

전자렌지용 팝콘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성인의 하루섭취 허용량(2.2g)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딸기 이렇게 키우는구나" 22일 어린이들이 광주시 북구 용강동 딸기 재배 하우스에서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딸기 따기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관내 30여개 어린이집 2천여명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실시한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외래어종 방생 마세요"

토종어류 마구 잡아먹어

광주시는 22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방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소개구리·붉은귀 거북·큰입 배스·블루길 등 외래종과 떡봉어·미꾸라지·이스라엘 잉어 등이 하천·호수 등에서 토종 어류를 잡아 먹는 등 생태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붉은귀 거북과 큰입배스는 토종물고기 등을 타치는 대로 잡아먹는 육식성이어서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동물로 꼽힌다.

불법 주정차·쓰레기 투기 '꼼짝 마!'

광주시, 전 행정력 동원 대대적 단속

광주시가 불법주정차·쓰레기 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광주시가 22일 "지난 3월부터 주차질서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단속을 병행해 왔으나, 효과가 미미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교통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 이날 말부터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 주·정차 위반 단속에 나선다. 주정차 단속에는 최첨단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비롯한 시와 질서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단속을 병행해 왔으나, 효과가 미미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승강장과 버스전용차로 등에서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위반 차량은 즉시 견인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피기로 했다.

또 원활한 시내버스 흐름을 위해 현재 7개 노선 29.5km인 버스 전용차로에 1개노선(17.7km)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올해 쓰레기 투기건수가 월평균 190건으로 지난해보다 60건이나 증가한 것과 관련,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행중 흡연금지조례를 제정하는 등 단속강화 근거 마련을 검토기로 했다.

또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쓰레기 분리용기를 확대·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옛 시청사 건립 할인점 다국적 유통업체가 인수 우회 진출 '논란'

광주시 옛 시청사에 건립중인 대형마트의 준공을 앞두고 이 건물을 다국적 유통업체가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우회진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관련된 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계림동 옛 시청사 부지에 ㈜P사가 지상 5층 연면적 2만6천700여㎡ 규모의 할인점을 연달게 준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컨설팅 등을 하는 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는 최근 국내 모 재벌그룹과 합작한 다국적 유통체인 S사에 이 건물을 65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연달게 개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S사가 지역의 반발 여론과 교통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 등을 의식, 이른바 '대타'를 내세운 뒤 우회진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P사는 광주 진출을 계기로 법인을 신규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을 끌만한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광주에서 대형마트 1곳을 운영중이며 수년간 남구 주월동에 신규 점포를 추진하고 있다.

"얼룩말·캥거루 보러 오세요"

우치동물원 새 식구 공개



광주우치동물원이 22일 얼룩말 3마리와 캥거루 31마리 등 새 식구를 일련에 공개했다. 30평 규모의 야외 우리를 마련해 햇볕을 보게 한 것이다.

얼룩말은 '아프리카 그랜드'종으로 2마리는 지난 19일 대전동물원에서 들여왔고, 다른 1마리는 야외 우리가 없어서 내실에서 키워왔다.

새로 들어온 얼룩말 2마리는 마리당 1천300만원선으로 각각 8세·4세의 암컷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텍사스 한 농장에서 들여온 캥거루들도 그동안 야외 우리가 마련되지 않아 초식동물 내실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지내왔다. 동물원측은 우리를 지으면서 철조망을 없애 대신 1만 볼트의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

이들 캥거루는 오스트레일리아 중부의 건조한 초원과 평지에 주로 서식하는 '붉은 캥거루(red kangaroo)'다.

우치동물원 최홍욱(38) 수의사는 "캥거루와 얼룩말을 관객들에게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 3억원 가량을 들여 개방된 우리를 지었다"며 "대전에서 들여온 얼룩말 한 마리가 임신 중이어서 3~4달 안에 또 다른 얼룩말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서구청 '365 업무지원'

혁신 브랜드사업 선정

광주시 서구청(구청장 전주연)이 시행하고 있는 '365일 24시간 업무지원 시스템'이 모범 사례로 선정돼 전

국 자치단체로 전파된다.

22일 서구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07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공모에서 서구의 '365일 24시간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됐다는 것.

서구는 이번 브랜드사업 선정으로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사람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람공채 모집안내
사람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결정하십시오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 ① 과목별, 수업실기, 면접 각학교 채용규정에 맞게 지도함
- ② 교육방법: 개인별면접, 직접강의, 동영상강의, 특별자료제공
- ③ 특별 영양교사 합격의 지름길(전국 유일 강의) 교육학+전공(교육방법을 가르쳐줌)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 광주지원 TEL. 062)511-6359 H.P. 017-631-4467 | 서울지원 TEL. 02)3664-5263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 616-81-11280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주세요!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포항)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를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재예술향,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p>목포 출발 "목카투어" 78,000원</p> <p>★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출발-홍델1박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등반-홍델1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30)출발(단, 일요일은 16:30출발)</p> <p>★ 출발일: 매일출발(단, 토요일은 제외) -토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p>	<p>고성(녹동)출발 "녹동투어" 78,000원</p> <p>★ 일정 - 1일째: 녹동 남해고속터미널(10시)출발-홍델1박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홍델1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8:00)출발</p> <p>★ 출발일: 매일출발(단, 금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토요일출발은 1박2일이나 3박4일 일정만 가능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p>	<p>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중) 179,000원(주중+주말)</p> <p>★ 렌트카 파격할인★ 전차종 75% 할인 ※이벤트 24시간 22,700원(네비게이션 포함)</p>
---	--	--

[1박2일 크루투어] 68,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 [3박4일 크루투어] 108,000원 (한라산등반+2일 제주관광) | [2박3일 크루즈+항공투어] 119,000원(주중)/139,000원(주말)

오전기념: 해저탐험 잠수함관광을 원하시면 49,500원 → 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한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품 요금)

조흥은행 708-01-074067 제주무궁화관광

문의: ☎ 064-744-1109 www.jeju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해리